

# 광주시, 수도권서 1229억 투자유치 협약

## 수도권 기업인 150여명 초청 투자설명회

### 에너지·자동차 등 18개 기업 협약 체결

광주시가 수도권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1229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

광주시는 12일 오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50여 명의 수도권 기업인을 초청한 가운데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도권 투자환경설명회에는 광주 지역 및 수도권 등 18개 기업이 참여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관련 업체가 5개사로 가장 많고 자동차 부품업체 4개사, 금융업체 3개사, 물류업체 3개사, 가전 2개사, 철구조물 1개사 등이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주)디에스피원, (주)지엔이피에스, (주)이올전력, (주)하나룩스, (주)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등 5개 기업이 총 315억원 투자를하기로 했다. 고용 창출은 22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 분야에서는 (주)금경테크, (주)정현하이텍, 전명하이텍, 청호정보통신(주)와 총 135억원 투자 및 70명 고용 창출 협약을, 가전분야에서는 그린테크(주),

무트스스킨(주)와 총 340억원의 투자 및 170명의 고용창출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와이에스제이, 다윈, (주)이주금형과 총 94억원 투자 및 35명 고

용창출, 물류분야에서는 (주)공단물류, 대립로지스(주), (주)호남케미칼과 총 325억원 투자 및 83명 고용창출 협약을 했다.

이 밖에도 철골구조물을 제작·생산하는 송우테크가 20억원의 투자 및 8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협약 체결에 이어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

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표창은 인천 남동구에서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주)파바나인 이재훈 대표, 진곡산단에 입주한 광원이엔지 정용용 대표, 대우그룹이 소촌공단에 신설한 (주)대우서비스 박완기 과장, HTNS관계법인 김광준 관세사 등 4명이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광주시가 진행한 투자환경설명회에 참여한 수도권 기업인들이 투자협약을 기념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아시아 모터스포츠 통합 레이스 축제 열린다

### 16일 영암 자동차경주장서

아시아 모터스포츠 통합 레이스 축제인 '2017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6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아우디 R8 LMS 컵', 'TCSA'(Touring Car Series in Asia)가 동시에 진행된다.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FIA(국제자동차연맹)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모터스포츠 챔피언십 대회로, 지난 2014년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국제대회로 확대됐다. 최고 클래스인 캐딜락 6000은 배기량 6200cc, 436마력, 최고속도 300km/h로 아시아 최초 스톱카 대회다.

'LMS컵'은 아우디 R8 차량만이 출

전하는 '윈메이크 레이스'이며, 'TC-SA'는 2000cc급 다양한 차종이 참가하는 아시아 투어링카 대회를 이끈다.

스톡카, 아우디 R8 GT3, 2000cc급 투어링카 머신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스포츠 팬들에게는 종합선물세트로 통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중국·타이완·말레이시아·홍콩 등 7개국에서 103대의 경주 차량이 출전해 8개 클래스로 나눠 기량을 겨룬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버추얼 챔피언십, 순간반응 테스트, 차량과 선수의 가까이를 볼 수 있는 '그리드 이벤트', 경주장을 돌아보는 '달려요 버스' 등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

국내 주관방송사인 XTM과 네이버 스포츠에서 생중계되며, 자세한 정보는 슈퍼레이스 공식 누리집(www.super-rac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장마라는데... 전남 서부지역 811ha 모내기 못해

### 신안·영광·무안 등 장맛비 평균 60mm 짙음 내리

7월 전남에 내린 장맛비가 동남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서부 지역은 여전히 가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0일 전남 동남부는 평균 150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였지만, 서부는 평균 60mm를 기록했다. 이 기간 고흥 도하 286mm, 여수 소리도 268mm, 구례 피아골 192.5mm, 장흥

184.4mm, 해남 북일 147.5mm, 강진 146.5mm, 곡성 121mm 등의 비가 내렸다.

반면 신안(압해도) 92.5mm, 영광 88.5mm, 무안 52.5mm 등을 보여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강수량 차이가 컸다.

저수율도 남부는 80%에 육박했고 동부

는 50%를 넘어섰지만 영광 46.4%, 무안 40.2%, 진도 22.4%에 그치고 있다.

전남 최대 농업용수원인 나주호 저수율은 28%에서 27.7%로 오히려 줄었고, 장성호도 30.3%에서 32.5%로 큰 변화가 없다. 용수담인 평립담은 16.8%로 예년 평균(61.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맛비가 내렸지만 모내기를 하지 못한 면적은 811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린 비의 양이 적은 신안(181

ha), 무안(86ha) 등 서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들 논은 물이 부족해 아예 모내기를 못했거나 모가 말라 죽은 곳여서 사실상 올해 벼농사는 포기한 실정이다.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진 영광, 신안 도서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지 않는다면 다음달 쯤에는 제한급수를 해야 할 형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뭄이 심각한 전남 서부는 내린 비의 양이 너무 적어 가뭄 해결에는 크게 미흡했다"면서 "다음달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정이나 관로를 뚫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사장 3차 공모 5명 응모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모두 5명이 응모했다.

1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자기 사장 3차 공모 결과 5명이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자 중 내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3일 서류심사, 17일 면접심사를 거쳐 최소 2명을 시장에게 복수추천하게 된다. 시장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지명하면,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해임 또는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도시공사는 2월 10일 1차, 3월 14일 2차 공모에 나섰으나 '셀프 추천' 등으로 1차 공모가 무산되고 2차 공모도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하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결국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7명의 임원추천위원 전원이 일괄사임하면서 임추위가 재구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예산 등 삭감

### 증심사 템플스테이 보조금 5000만원 증액

### 광주시의회 추경 심의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1차 추경안 4662억원 가운데 33억여원을 증액하고 33억7700여만원을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12일 열린 광주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제출한 3800여만원을 비롯해 광주 물총축제,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철거

주변 꽃길조성 3000만 원,중국관광객유치 활성화관련 예산 45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향림사 보수정비 사업비(1억원)는 신규로 편성됐고 증심사 템플스테이 보조금은 3억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됐다.

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안을 최종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무안습지 낙지, 순천만 갈대·흑두루미 등

### 갯벌 특성 고려해 브랜드 특화 관리 필요

###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위원

무안습지는 낙지, 순천만은 갈대·흑두루미 등 갯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를 특화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광전리터스 INFO(인포)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선진 연안국들은 법·제도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 향유 유산으로서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관리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 기준의 단순 양적 증가보다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해양경관, 생물다양성, 주요 수산생물 서식지 등 해양·지역 특성을 토대로 지정·관리하고, 보호구역별로 대표 관리대상을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비교보호습지보호지역은 갯벌이나 외막, 가거도 주변해역은 해양생물다양성, 소화도 주변은 연산호군락, 청산도 주변은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보호·관리대상을 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지역 해양보호구역 센터 설립과 함께 관리계획 수립, 해양평가체계 구축,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 해양보호구역 센터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센터에서는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13개 습지보호지역 231.3km<sup>2</sup>와 12개 해양생물·생태계 보호구역 345km<sup>2</sup> 등 총 25개소 576.3km<sup>2</sup>다. 이중 46.5%인 267.7km<sup>2</sup>는 전남에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만원 **4만 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땀뻑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보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